

# 성공, 통제, 의무 vs 행복, 자율, 소명 당신의 선택은

아빠 사자는 새끼를 벼랑에서 밀어낸다. 오로지 자신의 네 발에 의지해 낭떠러지를 오른 사자만이 백수의 왕이 될 자격을 얻는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도 '세상'이라는 절벽을 기어오르는 아기 사자의 의지와 힘 아닐까? 자식을 사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사자의 마음을 갖춰야 할 터. 새 학기를 준비하며, '나만의 잣대'가 필요한 때다.

담당 김지민 리포터 sally0602@naver.com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미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  
지은이 강현정 · 전성은  
퍼낸곳 메디치미디어

'내 자식은 절대 보내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그곳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란 보물을 찾았다. 선뜻 나서기 힘든 그 길을 권하는 학교가 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는 명문대 진학 실적이 뛰어나, 입시철마다 언론에 소개되는 학교. '진학 실적의 비밀이 인성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자율 속에서 학생들의 소명 의식을 키워주는 것'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교육 전문 기자로 활동하던 지은이도 처음엔 '핫'한 교육 정보를 얻기 위해 거창고를 찾았다. 성공보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창고 철학의 중심에 '직업선택의 심계(이하 직업 심계명)'가 있음을 보았다. 지은이는 "휴먼 다큐멘터리를 쓰듯 직업 심계명을 3년간 취재했다"고 전한다. 전성은(전 거창고 교장)의 구술이 길잡이가 되었다.

거창고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거창고 졸업생들을 찾아 인터뷰했고, 인터뷰를 위해 일본까지 방문했다. "거창고를 명예 졸업한 기분이다"라고 말하는 지은이는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변했고, 이를 통해 "사춘기 딸아이의 인성과 성격도 향상되었다" 고백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아이들에게 하던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게 된다. "나는 어떤 부모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이의 날개를 펼치게 하고 싶다면 우선 새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 ㉠

## 지은이 강현정 작가와 일문일답

교육 전문 기자로 일하며 많은 교육 기사를 다루다 보면 현실적인 정보도 많이 접했을 텐데, 거창고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계기는? 처음엔 단순히 진학 성적이 좋은 시골 명문 학교 정도로 생각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 진학의 비결 같은 요령을 기대했다. 그런데 거창고의 교육 정신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삶의 방식을 배웠다.

거창고의 심계명은 특별하다. 이 심계명 정신이 교육과정에도 온전히 녹아 있나? 일반 고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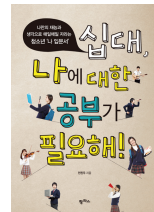
거창고 교육의 핵심은 '자율'이라고 생각한다.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목록이 훨씬 많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부모들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자녀에게 잔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간섭과 통제를 한다. 거창고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학생 자율에 맡긴다. 하다못해 교복이나 체육복도 없다. 학교는 '자율'이 아이들을 성장시킨다고 믿는다.

거창고 심계명을 보면 세상이 말하는 '잘나가는' 삶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부모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엄마인 지은이가 부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부모일까'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과정이 어떨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마음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해친다. 직업 심계명은 역설적으로 삶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행복의 심계명이다.

## RECOMMEND

심대, 나에 대한 공부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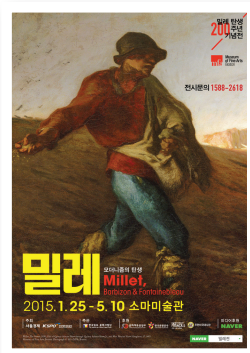
성적이나 스펙 같은 자력만큼 '나 자신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고 일깨우는 에세이집. 지은이는 '성공한 미래'에 맞춰진 청소년의 시계를 현재 맞추고 '나'에 대해 생각해보라 얘기한다.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어온 것이 사실은 알려진 지식인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만의 생각을 키우는 활동을 소개한다. '내가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것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지' '나에 대한 탐색'을 하라고 강조한다.

지은이 전진우  
퍼낸곳 펍파스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

밀레의 대표작이자 보스턴미술관 4대 걸작인 '씨 뿌리는 사람' '감자 심는 사람들' '추수 중에 휴식' '양치기 소녀'가 국내 최초로 전시된다. 밀레와 그가 이끈 바르비종파 미술 운동의 흐름과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19세기 사실주의 화가 밀레가 남긴 미술사적인 의미와 그를 통해 인상주의 탄생 배경까지 알 수 있는 기회.

기간	5월 10일까지
장소	소마미술관
관람 등급	제한 없음
관람료	6천~1만4천 원
문의	1588-2618



**블라디미르 쿠쉬 - 환상 세계로의 초대**

세잔을 비롯한 인상파의 영향을 받은 그림을 그리다가 14세부터 독특한 화법으로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블라디미르 쿠쉬. 회화 오브제 등 총 170여 점으로 구성. 무의식, 욕망, 환상의 3가지 테마와 영상 작품, 드로잉 작품으로 구성된 작가의 방으로 연출된다.

기간	4월 5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 등급	제한 없음
관람료	7천~1만2천 원
문의	02-784-2117



Arrival of the flower ship(78.7×99cm)

**진경산수화 - 우리 강산, 우리 그림**

겸재 정선이 59세경에 그린 '성류굴'부터 돌아가기 직전에 그렸다고 추정되는 '금강대'까지 출품된다. 우리 국토에서 명승지로 꼽히는 관동팔경과 단양팔경, 서울 주변의 경교 명승, 박연폭포 등이 모두 그 안에 포함된다. 겸재와는 또 다른 흥취를 담은 아년 단원 김홍도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기간	5월 10일까지
장소	DDP
관람 등급	제한 없음
관람료	8천 원
문의	1644-1328



김홍도 '금강산도 - 마허언'

**'거장'과 특별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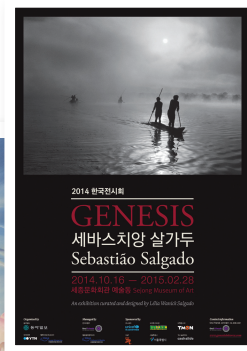
우리의 문화적 자존감을 지켜주는 겸재 정선, 지난해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장 프랑수아 밀레, "사진은 번역이나 다른 과정이 필요 없다. 그 자체의 메시지로 전달된다"고 말한 세계적인 사진작가 세바스치앙 살가두, 초현실주의의 거장 블라디미르 쿠쉬... 그 이름만으로도 감동과 메시지를 전하며 거장의 힘을 느끼게 하는 전시를 모아봤다.

담당 박선순 리포터 ss7262@hanmail.net

**세바스치앙 살가두 GENESIS 사진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세바스치앙 살가두는 이번 전시에 대해 '지구에 붙이는 연애편지'라고 말한다. 2004년부터 8년 동안 전 세계 120여 개국을 돌며 숨겨진 지구의 경이로움을 담은 이번 작품 245점으로 채워졌다. 자연에 대한 장엄한 기록을 남김과 동시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기간	2월 28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관람 등급	제한 없음
관람료	8천~1만5천 원
문의	02-722-2267



**조르조 모란디 - 모란디와의 대화**

국내 최초로 이탈리아 근대미술의 거장 조르조 모란디의 삶과 예술을 소개한다. 특정 유포에 속하지 않아 대중에게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전시는 이탈리아 볼로냐에 위치한 모란디미술관의 소장품 중 작가의 전성기(1940~1960년대)에 제작된 회화(유화, 수채화), 판화(에칭), 드로잉 40여 점이 소개된다.

기간	2월 25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관람 등급	제한 없음
관람료	5천~9천 원
문의	02-2022-0600



(Studio) Giorgio Morandi's studio photo by Paolo Ferrari, Bologna